

인권동화 잘 읽기 • 노인인권 • 서혜경 | 한림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힘동이네 할머니



국가인권위원회

고려도와 경상도, 충청도, 전

원둥이네 함버나

백, 서, 조선시대, 조선고, 일

조선시대, 조선고, 일

조선시대, 조선고, 일

조선시대, 조선고, 일

조선시대, 조선고, 일

조선시대, 조선고, 일

조선시대, 조선고, 일

조선시대, 조선고, 일

조선시대, 조선고, 일

조선시대, 조선고, 일

조선시대, 조선고, 일

조선시대, 조선고, 일

조선시대, 조선고, 일

조선시대, 조선고, 일

조선시대, 조선고, 일

조선시대, 조선고, 일

조선시대, 조선고, 일

조선시대, 조선고, 일

조선시대, 조선고, 일

조선시대, 조선고, 일

인권동화 잘 읽기 • 노인인권 • 서해경 (한림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흰둥이네 할머니



국가인권위원회



차 례

1.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2. 노인의 문제
3. 왜 노인인권인가?
4. 노인학대 실태
5. 인권동화 들여다보기
6. 노인인권문제의 사회적 책임
7.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실천
8. 함께 이야기해 봐요
9. 참고하세요

1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노인인구현황

노인 인구 증가

우리나라도 노인이 1980년도에 146만여 명이었는데 1995년에는 266만 명에 이르러 15년 만에 무려 100만 명이 넘게 늘어났다.

2002년에는 노인이 전체 인구의 7.9%를 차지하며, 2020년에는 15.1%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면 이제 우리 사회도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다.

한국 노인인구 추이							
(단위 : 명)							
연도	1980	1990	2000	1995	2005	2012	2020
전 인구	25,012	32,241	38,124	42,869	45,093	47,639	50,650
65세 이상 노인인구(%)	726 (2.9)	991 (3.1)	1,456 (3.8)	2,195 (5.1)	2,657 (5.9)	3,772 (7.9)	7,667 (15.1)

자료 : 장래인구 추계(통계청, 2001. 1.)

평균수명의 연도별 증가추이

평균수명은 1970년도의 63.2세에서 2000년에는 75.9세로 12.7세나 높아졌다. 여성의 경우는 평균수명이 80세에, 남성의 경우는 72세에 이르렀다. 2020년에는 여성의 경우 84세를 넘고 남자도 77세를 넘겨 여성 노인이 8년 정도 수명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수명		(단위 : 세)				
연도별 구분	1970	1990	2000	2005	2020	
남	59.8	67.7	72.1	74.4	77.5	
여	66.7	75.7	79.5	81.2	84.1	
평균	63.2	71.6	75.9	77.7	80.7	

자료 : 통계청(2001)

노인의 사회적 특성

남성보다 여성의 수명이 길다보니 남편과 사별한 여성 노인은 62.4%지만 아내와 사별한 남성노인은 11.4%로 나타났다(통계청, 2001). 홀로 사는 여성노인의 노후가 또 하나의 노인문제가 될 수 있다.

60세 이상의 노인 중 약 61%가 종교가 있고, 그 중 불교(59.0%), 기독교(25.5%), 천주교(10.5%), 기타 종교 순이었다. 다른 연령층보다 불교를 믿는 비율이 높다(통계청, 1999).

교육수준은 다른 연령계층보다 현저히 낮다.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의 교육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가족관계나 부양의 특성

1998년 현재 자식이 부양하는 비율이 58.2%, 스스로 해결하는 노인비율이 41.6%, 기타 0.2%다. 조사로 보면 아직 자식에게 노후를 의존하는 경우가 높다.

2000년 2세대 가구가 72.9%이며, 3세대 가구는 9.9%다 (통계청, 2001).

2002년 현재 가족내 수발자가 없는 독거노인이 8만여 명이다.

부모의 생계부양							(단위 : %)	
	자식이부양						스스로 해결	기타
전국	58.2						41.6	0.2
	장남	장남외 아들	아들들	딸	딸들	아들과 딸들		
	27	10.9	8.9	1.4	0.4	9.6		

자료 : 통계청(1998)

노인의 거주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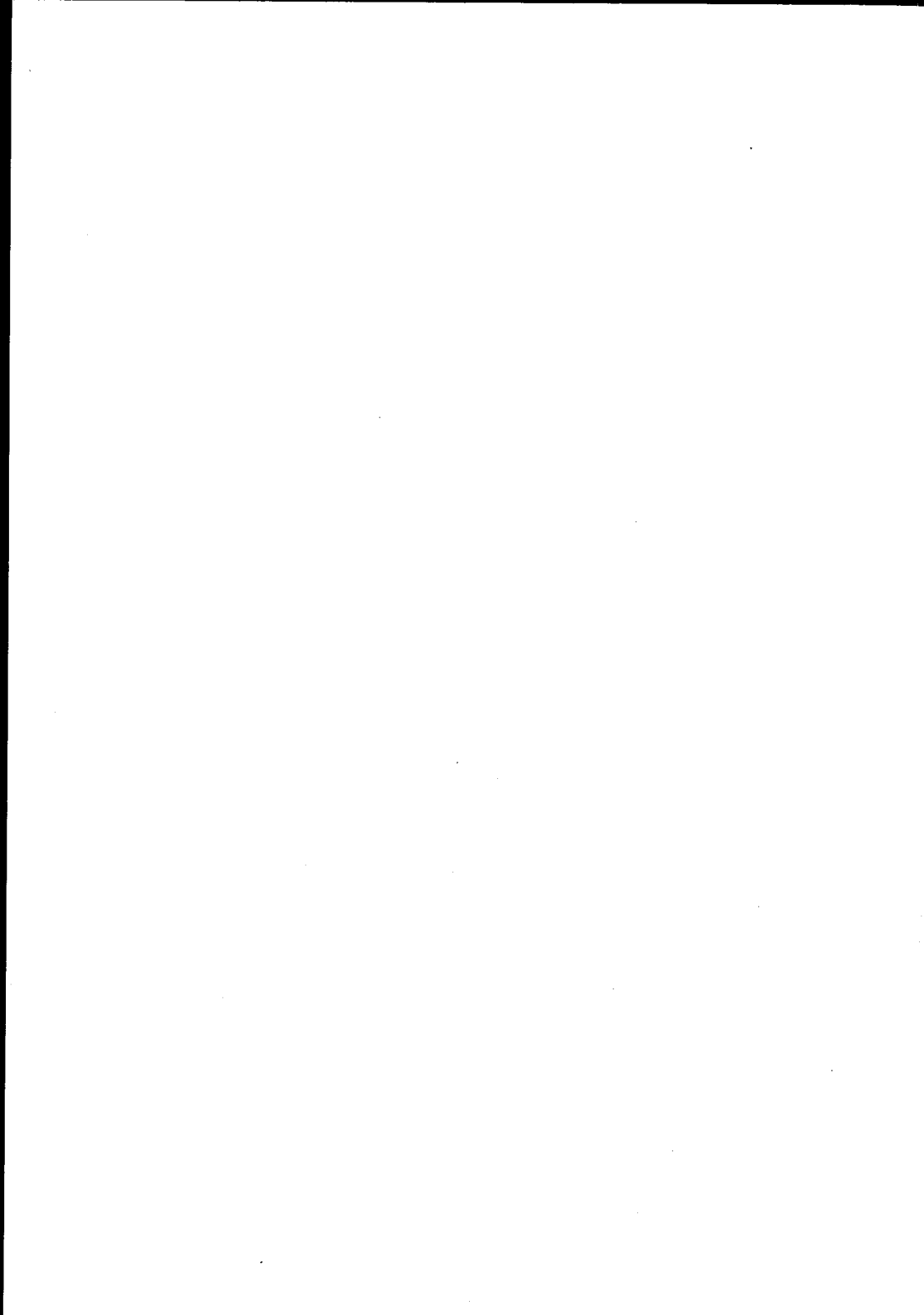
2000년 조사에서 노인 혼자 사는 가구는 단독주택에 78.8%, 아파트에 13.5%, 기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사는 순이다.

노인부부 가구도 72.4%가 단독주택에 산다. 대부분 우리나라 노인은 여전히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통계청,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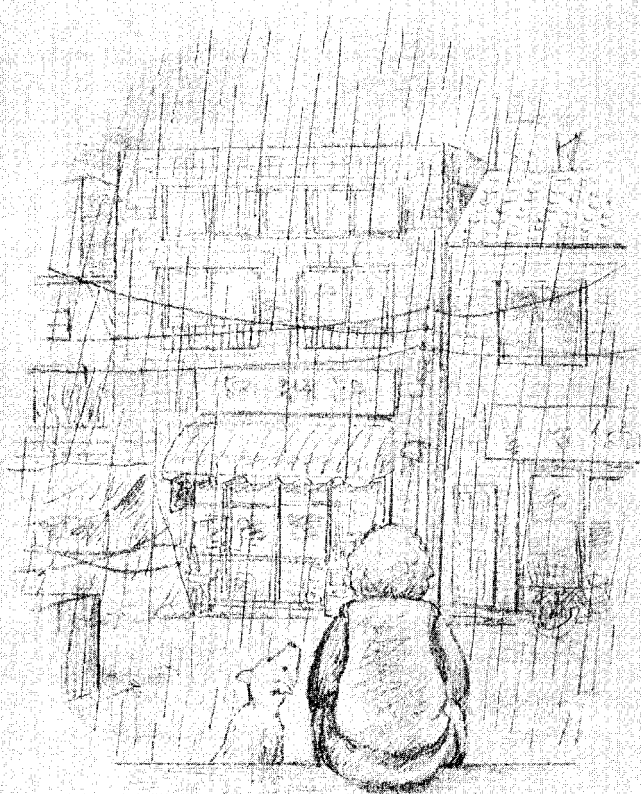
유료 및 무료시설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에 사는 노인은 1983년 0.3%에서 2000년 0.4%로 큰 변화가 없었다(보건복지부, 2000).

노인거주시설 운영현황								2001. 12월 기준				
구분	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정신요양시설	노인보호시설	노인숙박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시설수	296	121	120	57	96	96	54	4	13	24	11	3
입소인원	22,518	7,241	11,210	4,067	4,872	6,210	4,067	174	939	2,195	4,061	284

무료시설은 2002년도 개원예정시설 포함



노인의 문제



60세 이상의 노인 문제로 경제, 건강, 외로움, 소외, 소
 일거리가 없음 순으로 지적한다. 기타 가족의 푸대접, 노인
 복지시설, 경로의식의 약화 순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노인문제에 대한 인식									
(단위 : %)									
문제 분류	경제적 문제	취업 문제	소일거리 없음	건강 문제	외로움, 소외	가족의 푸대접	경로의식 약화	노인복지 시설	기타
60세이상	32.4	4.4	8.8	31.5	12.1	3.3	1.7	3.6	2.3

자료 : 통계청(1998)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현황							
재가노인복지사업 (2001년 실시기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 휴양소	노인 복지 회관
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 보호사업	단기 보호사업				
168	88	57	23	40,691 (1,337,157명)	583 (956,660명)	6 (41,282명)	114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는 2001년 12월 현황임

건강문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약 87%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고령일수록 유병률이 높고 질환을 경험하는 기간도 길어져 유병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많다. 65세 이상 남성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77%이지만, 여성노인의 유병률은 92%나 되어 여성노인의 건강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주로 관절염, 요통, 좌골통, 고혈압 등의 병세가 많다. 만성 질병을 가진 노인의 경우 부양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보니 서로 많은 갈등이 있고 생활 전체가 파행적으로 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8.7%에 이르는 31만명 정도를 치매노인으로 본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한 80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는 2000년에는 48만여 명에서 2020년에는 134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 2000).

이런 통계로 보아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확충, 노인전문 병원과 요양보호기관의 확충, 노인의료서비스를 위한 재정과 전문요원의 확보는 시급하다.

경제적 문제

노인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55세 이상의 취업인구 비율이 1978년도의 10.4%에서 2000년 현재 16.4%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있지만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통계청, 2001).

고독과 소외의 문제

현재 전체 노인가구의 20%가 노인 혼자 사는 가구이며, 22%가 부부가 사는 가구여서 자녀와 별거하고 있는 노인 비율은 42%에 이르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노인에게 사회적 안전망과 지지는 외로움을 크게 줄여 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자녀와 가족의 사회적 안전망과 지지는 더욱 그렇다.

핵가족화의 가속화는 따로 사는 데 따른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대화 단절의 가능성도 높아 노인이 경험하는 외로움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역할상실의 문제

노인은 직장을 그만두면서 사회성, 생계유지자의 역할을 상실한다.

자녀의 독립으로 양육자의 역할도 줄어들고 배우자나 주위 가까운 사람과 사별하는 경우도 생겨 배우자 등의 역할도 상실한다.

역할상실로 상호작용의 기회가 줄어들어 자아상실, 우울, 외로움, 성취감과 자부심의 상실 등 기타 부수적인 문제가 늘어난다.

왜 노인인권인가?



앞서 여러 통계를 통해 살펴본 대로 우리 사회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노인문제가 사회소수자 인권문제 중 심각한 인권현안으로 대두되었다.

노인도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는다라는 헌법 제 10조의 내용은 노인자신의 행복 추구 권리, 국가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주권자로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 등의 기본정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노인에게 보장되어야 할 고유한 권리를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해 본다.

첫째는 권리주체로서의 노인이다.

노인 스스로 인권의 주체이고 한 인간으로서 모든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인격의 주체이다.

둘째는 자기결정권의 확립이다.

노인이 인권을 보장받고 권리주체자로서 최후의 순간까지 개인의 존엄을 유지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자기결정권을 확립해야 한다.

자기결정권이란

1) 노인이 자기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알 권리

2) 욕구의 판정에 참가할 권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예를들면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결정할 때 이용노인도 프로그램위원이 되어 그들의 욕구판정에 참여한다.

3) 복지서비스 신청권, 이용자의 동의와 선택의 권리: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하고 외부에서

이용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그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동의 혹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

4) 처우과정에 이용자가 참가할 권리:

복지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과정이 이용자의

이해에 최우선할 수 있도록 이용자 혹은 법적 대리인이

서비스 계획에 참여하여 본인의 이해를 대표하는

권리를 말한다.

셋째는 노인의 잠재능력의 존중과 이의 활용이다.

이 셋째 항은 반드시 노인의 인권을 확립하고 그 주체성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연령차별주의를 벗어나 노인도 하나의 인간으로 바라보며, 나이 든다는 것은 활동의 조건이 변화하는 것이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노인의 잠재적 능력을 무시하지 말고 최대한 고려해야 하는데, 수발하는 사람이나 기관의 편의대로 일률적으로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예를들면 어르신들의 유니폼 등 일률적 의복착용이나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에만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 등이다. 어떤 경우는 사고가 날까봐 운동을 할 기력이 있는데도 그대로 누워 지내게 하는 경우도 있다.

권리의 구체적 내용

- 1) 의·식·주 등을 보장받을 권리
- 2) 수발을 요구하고 받을 권리
- 3) 적절하고 충분한 의료를 보장받을 권리
- 4) 적절한 노동의 권리와 적당한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
- 5) 자기의 재산관리, 수발, 신상감호를 보장받을 권리
- 6) 참정권, 복지행정에 참가할 권리
- 7) 권리구제를 요구할 권리

의·식·주 등을 보장받을 권리

주 : 낮익은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저렴하게 노인이 살 수 있는 주거설계를 요청할 수 있다. 스스로 주거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는 공적으로 '주거'를 보장받아야 한다.

심신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 주택의 설계를 바꾸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재정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식 : 노인의 구미에 맞는 맛있는 식사를 보장받아야 한다. 집에서 식사가 준비될 수 없으면 세 끼니마다 배식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시설에서는 관리상의 필요나 편의 때문에 섭취할 수 있는 능력을 퇴행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의 : 시설에 있는 경우 똑같은 옷을 입게 해서는 안 되며, 가정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노인이 좋아하는 옷을 입을 수 있어야 한다.

수발을 요구하고 받을 권리

수발을 요구하고 이것을 받을 권리(수발청구권), 의식주와 목욕·배설이 보장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는 것도 노인권리의 기본이다.

그러므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생활이 스스로 되지 않아 수발이나 보호를 받아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공적 부담으로 집에서나 시설에서 충분히 수발을 받을 권리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 가정도우미를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노인
의 집에 파견해서 말벗, 가사일, 병원동행 등의 수발을 들
게 하며 이에 따르는 경비는 서울시의 부담으로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등 틈새계층의 노인들에게까지는
그 혜택이 돌아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적절하고 충분한 의료를 보장받을 권리

질환이나 장애가 생겼을 때 적절한 의료나 조치를 의료
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무료로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검진제도가
실행되고 있으나 기초검사 몇 가지 외에는 보장되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성인용기저귀, 틀니, 보청기, 언어치료,
난청치료 등은 제공되고 있지 않다.

적절한 노동의 권리와 적당한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

임해상 수입을 얻거나 그런 수 없는 경우에 연금 등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있는 자나가 없는 노인가족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기초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 노인수급권자로는 전체 수급권자 1,335,000명의 25%인 333,000명이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노인이 가족과 학자금보다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아직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일할 수 있는 젊은 노인층은 많지만 그들에게 제공되는 직업은 거의 없는 편이다. 그러나 몇몇 직종, 예를 들면 이파리, 경비, 치과기공매달 등이 있지만 소득은 60-70만원 수준이다. 노동의 권리와 소득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의 소득에는 재산을 감당하거나 예금 등의 자축 자산에 대해서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재산을 임대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없지만 노인자축 1억에 대한 재능부과율을 낮추어 준다든지, 노인

들이 갖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의 논의는 꾸준히 되고 있다.

자기의 재산관리, 수발, 신상감호를 보장받을 권리

자기 명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이 노령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해 스스로 재산을 취득, 관리, 운용할 수 없을 경우 공정한 기관의 원조에 의한 적절한 재산관리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재산의 관리나 보호, 신상에 관한 대응을 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널리 대리인을 활용할 수 있는 성인후견인제도의 창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정권, 복지행정에 참가할 권리

정치나 정책에 참여할 권리를 말한다. 투표소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노인복지시설 내에서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참정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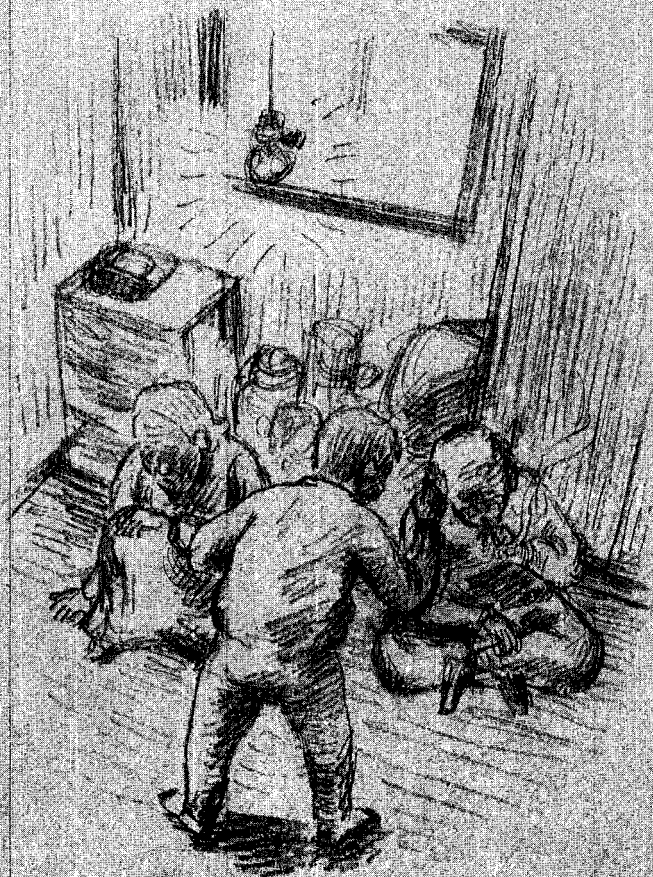
권리구제를 요구할 권리

구제를 요구할 수단이 신속하게 창설되어야 한다.

노인의 권리구제는 특히 수발에 관계하는 사항 등 일상 생활의 사항이고 또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행정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구두, 전화, 팩스에 의한 방법을 인정하거나 대리인의 활용을 널리 인정하는 등의 수단이 필요하다.

4

노인학대 실태



노인학대란?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 맡은 사람이 의도적으로나 비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재정적인 손상을 가하거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말한다.

학대 장소를 중심으로 가정내 학대, 시설내 학대, 자기방임이나 자기학대로 분류하기도 하고, 학대 행위와 관련해서 신체적 학대, 정서적·심리적 학대, 언어적 학대, 재정적·물질적 학대, 성적 학대로 분류하거나, 소극적 방임, 적극적 방임, 자기방임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노인학대의 주요 유형

신체적 학대

밀기, 꼬집기, 할퀴기, 때리기, 머리채 잡아당기기, 손바닥으로 치기, 돌이나 벽돌로 때리기, 흉기 등의 무기로 위협하거나 찌르기, 총으로 쏘기, 성적 강요, 성폭행, 감금 등의 폭력을 행사하며 신체에 고통을 주고 상처, 질병까지 초래하는 일을 말한다.

언어·정서적 학대

말로 괴롭히거나 호되게 꾸짖거나 벌을 주겠다고 위협하는 것, 모욕 등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심하게 자존심을 건드려 노인이 집을 나가고 싶게 하거나 자살의 충동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족의 무시로 안정이 안 되거나 고립감에 빠져 일상생활이 잘 안 될 정도의 정신상태가 되게 하는 것이다.

노인을 어른으로 대우하지 않고 어린애처럼 다루거나,
노인을 가족, 친구와의 활동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이다.

경제적 학대

노인의 돈이나 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돈을 계속 요구하고 재산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통장이나 인감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여 금품을 빼앗고 의도적으로 집이나 기물을 파손하거나 불지르는 것 등이다. 금전 등을 불법·부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한 행위가 진행중인 것도 경제적 학대로 본다.

부양거부·방임

자식이 그 책임을 거절하는 것이다. 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거나, 따로 거주할 집을 마련해 주지 않고 생활비도 주지 않는 행위 등이다. 수발해야 할 사람이 일부러 안 하거나 수발을 게을리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밥을 주지 않고
씻겨주지 않고 방을 치워주지 않고 무관심하며 서로 안 모
시려 하거나 함께 살던 노인을 내쫓아버리거나 거동이 불
편한 노인을 2~3일 이상 혼자 집에 내버려두거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병원에 모셔가지 않는 일 등이다.

성적 학대

원치 않는 성적 접촉, 신체접촉, 모든 종류의 성적 공격
이나 노골적으로 성적인 사진찍기를 포함한다.

유기

보살핌 책임을 맡았거나 신체적 보호를 하기로 한 사람
이 노인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홀대(방임)

스스로 건강이나 안전을 해치고 적절한 음식, 물, 의복, 주거, 안전, 개인위생, 약복용을 하지 않는 일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노인학대에 대한 연구가 초창기여서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경제적 학대, 방임이나 유기 등을 주로 다루며, 아직 성적 학대나 자기홀대(방임) 등은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화대유형별에 따른 발생징후

신체적 화대의 표시

- 멍이나 상처, 매 맞은 자국, 골절, 화상
-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흔적(두피 손상이나 출혈)
- 설명되지 않는 성병이나 감염
- 빗줄자국 같은 신체적 감금의 흔적
- 영양실조와 탈수증세
- 오물이 묻은 옷이나 침구류
- 주의력, 반응성, 방향감각의 쇠퇴 등과 같이 처방약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증상
- 꼭 필요한 안경, 보청기, 틀니 등의 부재
- 갑작스러운 건강의 악화
- 욕창증상

심리적 확대발생의 징후

- 불면증, 수면장애나 과도한 수면욕구
- 식욕의 변화
- 평소와 다른 체중감소나 증가
- 갑작스럽게 눈물을 쏟음
- 자기수용감(self-acceptance)이 낮아짐
- 과도한 공포
- 양면성
- 혼란스러움, 자포자기하는 경향, 흥분

경제적 확대의 표시

- 갑작스럽게 지불되지 않은 많은 청구서
- 갑작스럽거나 수상한 예금의 인출
- 노인의 재산정도와 생활상태가 일치하지 않음
-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은데도 돈이 지출되는 서비스를 거부하는 현상
- 노인의 재산에 대한 가족의 과도한 관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

(National Center on Elder Abuse의
Natioanl Elder Abuse Incidence Study의 Final Report, 1998)

노인학대 피해자

- 보복이 두려워서
- 시설에 입소될 것을 우려해서
- 가족이 홀대한 것이 부끄러워서
- 경찰과 복지기관이 자신을 도울 수 없다고 여기므로
-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 같아서

누군가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나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

-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 무엇이 행해질 수 있는지 몰라서
- 아무도 자기 말을 믿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노인학대 사례

심리·정서적 학대

[사례1] 신할머니는 아들 둘을 두었는데, 둘 중 큰아들은 공학박사까지 되었다. 큰아들을 혼인을 시켜놓고 보니 서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큰아들네가 어렵게 결혼생활을 시작했기에 얼른 집도 사고 하라고 살림도 해주고, 손주도 돌봐주고 했는데, 아들이 신할머니에게 잘하시는 것에 대해 며느리가 너무 시샘을 해서 토라지곤 한다. 지금도 이러니 나중에 더 늙으면 어떻게 될지는 뻔한 일이고 해서 힘있을 때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내 갈 길은 내가 개척해야 함을 깨달은 것이다.

[사례2] 이할머니는 아들만 위하여 평생을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살아왔다. 그동안 혼자 살다가 지금은 당뇨병 말기가 되어 6개월 전에 큰아들 집으로 들어가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다. 정신은 멀쩡하지만 누워서 생활해야 할 때가 많고 겨우 기어서 다닐 정도이다 보니 점점 큰아들

내외가 이할머니와 이야기도 하지 않아 이할머니는 큰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기는 하지만 소외상태이다. 며느리는 집에 있지 않고 매일 나가고, 나가기 전에 식사 한끼를 방문 앞에 밀어놔두고 밤에 들어오곤 한다. 함께 사는 일이 더 고통이다.

부양거부 · 방임

[사례1] 3남 1녀를 둔 김할머니는 그동안 셋째 아들 집에서 함께 살며 손주들을 다 키웠다. 할머니가 고혈압과 중풍으로 건강이 안 좋아지자 셋째 아들은 할머니에게 큰아들네에 가서 살라고 한다. 큰아들은 할머니를 모시려 하나 큰며느리가 할머니를 모시지 않겠다고 한다.

[사례2] 최할머니는 정신은 멀쩡하나 10년 전 중풍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었고 지금은 큰아들네와 함께 산다. 어쩌다 딸들이 가보면 할머니의 방은 쓰레기장 그 자체이다. 냄새도 심하게 나고, 더럽고…….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해서 치울 수 없는 상태이고 며느리나 아들이 전혀 치워주지 않는다.

신체적 학대

[사례1] 김할머니는 큰아들이 사업에 망하자 손주와 큰 아들이 할머니네로 들어와 살게 되었다. 측은한 마음에 어미로서, 할미로서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마냥 뒷바라지를 해주다보니 어느날부터인가 큰아들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 할머니를 때리기 시작했고, 이를 보며 자란 손주도 할머니에게 욕을 하고 때리는 생활이 계속되었다. 그러니 함께 살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아들네를 도로 나가서 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태이다.

[사례2] 최할머니는 다세대주택에서 사는데, 세입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할머니다. 이런 할머니를 보는 할아버지는 언젠가부터 의심을 하여 술만 먹고 들어오면 할머니에게 아랫집 남자에게 왜 그렇게 잘해주냐며 구타를 한다.

경제적 학대

[사례1] 박할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생 모은 재산이 있다. 그런데 시골에서 함께 농사짓는 아들이

할아버지에게 돈 내놓으라고 자주 협박을 한다. 그러다 어느날 할아버지는 건물 한 채를 팔았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아들은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집을 팔았냐'며 동네사람들이 다 보는데서 행패를 부렸다.

[사례2] 큰아들네에서 장애가 있는 작은아들과 함께 사는 김할머니는 평생모은 돈 오천만원을 큰아들 사업 자금으로 빌려주었다. 그런데 며느리가 이제와서 장애인이랑 함께 사는게 자녀교육상 좋지 않다며 나가 살라고 한다. 빌려간 돈이라도 주면 전세 얻어서 나갈텐데, 돈은 주지 않은 채 나가라고만 한다.

우리나라 노인학대 실태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노인의 전화, 2002

(수도권, 충청·강원권, 영남권, 호남권에 거주하는 1,349명 대상)

신체적 학대

- 노인이 보는 앞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다 3.9%
- 노인을 밀어서 넘어뜨린다 3.1%
-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다 2.2%

언어적 학대

- 노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울 지른다 6.6%
-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거나 꾸짖으며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한다 10.5%
- 노인을 억지로 양로원 등으로 보내겠다고 한다 2.1%

정서적 학대

- 노인의 가족이나 친지 등의 방문을 싫어한다 7.7%
- 노인이 가족을 타이르거나 의견을 말하면 간섭한다고 불평하고 화낸다 12.3%
- 가족이 노인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한다 19.9%

경제적 학대

- 노인에게 빌린 돈이나 물건을 일부러 갚지 않는다 5.9%

- 노인의 연금이나 임대료 등의 소득을 가로챈다 1.8%
- 노인의 허락없이 부동산 등의 명의를 변경한다 2.2%

방임

- 스스로 식사준비를 할 수 없는데 혼자 내버려둔다 8.6%
- 아픈 노인에게 약을 주지 않거나 병원에 모셔가지 않는다 5.5%
- 노인의 몸이나 옷 또는 주변환경이 더러워도 내버려둔다 4.5%

노인학대 실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 1999

(전국 6개도시 노인복지회관 이용자 865명 대상)

신체적 학대 : 0.3 %

언어·정서적 학대 : 7.7%

경제적 학대 : 2.1%

방임 : 2.1%

기타: 1.0%

미국의 경우- NCEA. 1998

(보스톤에서 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노인 2,000명 대상)

노인 1,000명당 32명 노인학대경험

신체적 학대 1,000명당 20명 - 가장 일반화된 유형의 학대

만성적 언어공격 1,000명당 11명

방임 1,000명당 4명의 순

5 인권동화 들여다보기



이 동화는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사례에 근거하여 제작한 것으로서 여섯 편 각 곳에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정서적, 언어적 학대에서부터 경제적 착취, 신체적 학대에 관한 내용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인을 모시고 대해야 하는지 노인의 삶은 어떤지 등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동화책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흰둥이네 할머니"

며느리가 집안에 주로 있는 시어머니에 대한 구박, 더 나아가 학대에 이르는 이야기이다. 영양실조, 방향감각의 쇠퇴, 더러운 옷, 건강약화 같은 신체적 학대 징후, 체중감소, 좋아하는 강아지 흰둥이에 대한 며느리의 홀대 같은 심리적 학대가 나타났다.

집에 할머니랑 제일 오래있는 사람이 바로 며느리이다. 따라서 누군든 이야기 속의 며느리처럼 할머니랑 오래동안 같이 지내는 사람들은 갈등의 소지를 많이 가지게 된

다. 이런 경우 고부가 같이 있는 시간들을 줄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각자 취미활동을 한다는지, 서로 번갈아가면서 외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며느리는 지역여성개발센터, 시어머니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이다. 만약 시어머니가 건강하지 않는 경우는 낮 동안 돌봐드리는 지역사회 주간보호센터나 더 나아가 3개월 봐드리는 단기보호 등의 지역사회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아니면 집으로 무료 또는 실비로 가정봉사원들을 파견받아 부양부담을 줄이는 방법들을 강구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아 추워 영감”

정신력의 상실로 여름에도 입버릇처럼 ‘아 추워, 아 추워’ 하여 아 추워 영감이라는 별명이 붙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노인학대유형 중 방임과 관련된다. 사랑과 지극정성으로 정신장애도 극복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사랑이 상실됨으로써 비참한 죽음에 이르는 이야기이다.

노인문제는 노인층의 급속한 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 특히 경제계 정책집행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하다. 더군다나 정신장애노인에 대한 관심과 복지는 더 소원하다. 지역사회의 노인에 대한 관심과 정신장애노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 등이 필요하다. 일반노인복지시설에 정신장애노인의 통합프로그램을 접합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는 이야기이다.

세 번째 이야기 “과수원 할아버지의 슬픔”

과수원을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 아들과 그래도 사람으로 키워보려는 노부모끼리의 심한 갈등을 다룬다. 여기에서는 경제적 학대와 더불어 신체적 학대가 등장한다.

인륜을 저버린 패륜이를 다스리는 가정폭력방지법이 있지만 노인복지법 안에도 노인인권, 노인학대 등을 다룰 수 있는 법이 별도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가정폭력방지법에서 노인학대를 다루는 방안, 다음은 노인복지법안에서 학대를 다루는 방안, 더 나아가 노인학대에

방법(가칭)을 제정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고령자 인권보장법과 같이 노인학대의 영역을 넘어 좀더 궁극적인 인권의 차원을 법률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노인학대에 따른 법적 제도적 개입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방안에 갇힌 곱단 할머니"

노인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 방임, 신체적 학대의 혼합형을 보여준다. 다시말해 노인학대의 유형 중 정서적·언어적, 신체적 학대와 관련된 것으로 가끔 가정내에서 고부 갈등을 넘어서 노인학대에까지 이르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어떻게 노부모를 모셔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줄거리이다. 누구나 다 늙고 노인이 되는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못하는 짧은 생각이 얼마나 많은 노인에게 상처주고 있는지를 다루었다.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즉 세제혜택, 아파트 분양우선권,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이 보낼 수 있는 다양한 노인실비요양시설의 확충

이 필요하다. 건강하지 못한 노부모를 모시는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개발, 예를 들면, 가족수발자에 대한 수발수당, 장기요양보험 등의 도입을 서둘러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사회적 배려, 인간존중 등이 주요테마이다. 특히 노인학대를 집안내의 사건으로만 보는 경찰들의 의식전환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할아버지는 어디로 가셨을까?”

노인학대유형 중 전형적인 경제적 착취를 다루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내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자녀의 추한 모습을 보여준다. 요즘 특히 허락 없이 노인의 재산을 명의 이전하거나,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거나 귀중품을 가로채는 등 노인소유의 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자식이 늘고 있다.

경제적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즉 건강한 소비생활

을 위한 노인소비자 교육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특정사기 및 경제적 착취를 담당하는 부서 및 담당인력 확보, 법률적 지원 등이 경제적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노인을 주대상으로 하는 상품, 예를 들어 건강식품, 실버타운 등에 관한 규제 및 65세 이상 특별소비자 보호 조항을 신설 강화함으로써 노인이 경제적 착취의 대상이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의 재산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신용관리회사, 정신적으로 허약한 노인을 위해 정당하게 재산권행사 등을 도와주는 성인후견인제도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이야기 “함미꽃 전설을 아시나요?”

집안 내 학대로서 며느리의 언어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등을 다룬다. ‘무자식 상팔자’라고 ‘자식 많은 집에서 효자 없다’고 한다. 이는 서로 부모의 부양을 미루는 현상이 짙어지고 있음을 빗대어 나온 말이다. 자식 넷을 둔 다복해야 할 할머니가 그 자식들한테 버림받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다행히 할머니는 자기홀대나 자살 등의 극단적 방법보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주부생활의 기술로 남의 집에 상주가정부로 취직해서 돈벌고 그 집에서 대우받고 당당하게 살아간다. 지금이라도 이런 처지에 있는 노인을 위해 노인 취업의 문이 열려야 한다. 지금 서울에는 서울시가 지원하고 위탁운영하는 고령자 취업알선센터가 13곳이 있다.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는 노인들의 소득보장과 보람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55세 이상 노인 및 노인구인업체를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적성과 근무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직종별 취업적응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주로 여성노인들의 경우는 상주가정부, 파출부, 간병인, 아이 봐주기 등에 취업되고 있다.

노인인권문제의 사회적 책임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긴급보호

지역사회에서 학대받는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 강화한다. 기존의 보건소를 통한 신체적 학대의 처치를 정신건강 차원까지로 확대하며 신체적 학대의 경우는 임시적으로나마 피학대노인을 격리보호할 수 있는 쉼터의 필요도 절실하다. 특히 노인의 특성상 노인학대쉼터의 경우는 임시적 쉼터 이외에 학대위험요인으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될 수 있는 대안적 주거형태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학대의 원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쉼터에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극한 학대상황에서의 임시적 격리에 따른 쉼터와 더불어 장기적인 반영구적인 새로운 형태의 주거시설, 예를 들면 노인그룹홈 등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그룹홈 설치
- 기존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쉼터와 연계
- 피해노인에 대한 응급처치와 적절한 배치

(노인복지관련시설과 기관간의 사전연계)

- 피학대노인의 건강 체크를 위한 인근 보건소 및 지역사회병원들과 연계

학대 상담전화 활성화

현재 전국에 있는 11개 노인학대 상담센터(9. 참고하세요 참조)를 활성화하고, 노인 학대 예방매뉴얼을 통해 노인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며, 노인상담센터 이용에 관해서도 홍보한다.

- 기존의 전국 11곳의 노인상담센터 활성화
- 학대 예방매뉴얼 제작

노인학대 전문교육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

- 학대자, 가해자 교육
- 노인수발자를 위한 교육
-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봉사원을 위한 교육
- 신고의무자와 노인관련 직종 서비스자 교육
-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연계

선진국의 노인학대 상담원 교육연수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과 네트워크 구축

학대받는 노인의 특성에 따라 개입에서 치료까지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

상담, 일시보호서비스, 경제지원서비스, 의료적 처치, 법률상담, 사회복지기관 및 서비스 연결, 정보제공 및 타기관연계 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학대받는 노인가족의 기능보존 및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

학대받는 노인이나 가족들을 위해 지속적인 상담을 통한 심리/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 피해노인, 가해자, 가족 및 친지 등의 개별상담, 가족상담, 집단상담 등을 통해 학대로 인한 심리/정서적 치유를 도모한다.

상담센터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와 다양한 지원과 긴밀한 협력관계 형성의 필요 :

특히 보건복지부, 지방 자치지구, 사법경찰, 의료기관 및 노동부, 행정자치부, 지역노인복지관 등과 연계

노인학대 사례 관리체계 확립

노인학대 사례 DB구축

분기별로 전국 노인학대 사례현황 파악

다양한 분석, 도·농간의 비교, 지역간의 차이, 사례별,
유형별, 후유증별, 서비스별 등의 사례관리와 모니터링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인구집단별로 가능한 교육강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피학대노인과 일반노인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노인소비자 교육, 학대위험요인을 중심으로 한 학대예방교육이 진행될 수 있다. 주부양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년세대 여성을 위한 노인 부양교육, 부양부담 스트레스 완화 등이 지역의 여성발전 센터나 문화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남성을 대상으로 근무처에서 제공하는 은퇴준비교육 내용에 포함시켜 진행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노인학대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일일 노인되어 보기 등의 노인체험학습을 통해 노인, 노화에 대한 이해를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처럼 유

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보건교육 교과과정에 노인, 노화, 죽음 등이 포함되어 노인에 대한 일체감, 존엄성을 어릴 적부터 생활화하게 한다.

공익광고,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매체와 협력

공익광고, 뉴스 등을 활용한 일반인들의 노인학대 인지도 강화, 1·3세대 통합적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한 전세대적 접근 강화,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관련 시설을 통한 노인학대홍보 등을 들 수 있다.

7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실천



노인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운동

노인의 현주소 - 학대 유형, 원인 규명, 피해자 특성, 가해자 특성 등을 체계있게 연구해야 한다.

최소한의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노인학대는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 전반의 문제의식을 드높이고 시민단체와도 협력하여 노후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사회운동이 필요하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법 제정 필요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노인과 노인학대의 정의
- 신고의무규정
- 노인시설의 노인학대 예방과 조사관리규정(장기요양
옴부스맨제도 도입 검토)
- 성인후견인제도 도입과 규정
- 옴부스맨제도 (시설·기관의 교육, 훈련, 감시 등)
- 노인인권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
- 장기요양시설 면허심사위원회 신설
- 담당 정부부서와 역할 지정

- 노인학대 신고와 개입 관련기관(정부 담당부서, 경찰, 노인복지관, 검찰 등) 지정과 역할에 대한 지침,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 내용 등 포함

피해자와 가해자를 막을 서비스 개발

- 가해자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개발—충동억제 장애, 관계에 대한 부정적 태도 극복, 부양자 지원 그룹, 상담과 치료, 알콜치료프로그램 등
- 피해자 대상: 가해자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부양자의 의존도를 줄이는 방법, 주거환경개선, 시설과의 연계, 자기주장 훈련, 법적인 개입, 교통편의 제공 등

관련 기관과 연계

보건소, 관련 상담소, 경찰서, 법조계, 인근병원 등 여러 영역의 기관이 함께 문제해결에 참여해야 노인학대 사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미리 여러 기관

과 협정을 맺고 필요한 경우 예산도 미리 책정되어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 및 훈련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종합복지관, 노인교육 관련 등 노인복지관련 종사자, 전문상담가, 의료전문가 등 관련 인력 중 특히 노인학대와 관련된 인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전문가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노인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을 가능하게 하고, 전문가들의 지역사회간 연계를 구축한다.

노인학대에 의한 다면적 개입의 토대를 마련한다. 특히 이와같은 전문가 집단을 통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개입의 다양한 전략들을 개발하고 실행함으로써 가칭 노인학대예방 매뉴얼을 구성, 노인학대에 대한 일차적인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노인 및 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사 중에서도 노인학대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을 거친 성인보호전문사회복지사(Adult Protective Service Social Worker) 제도를 신설해서 노인학대문제를 전담케 함으로써 성인보호 및 노인학대에 대한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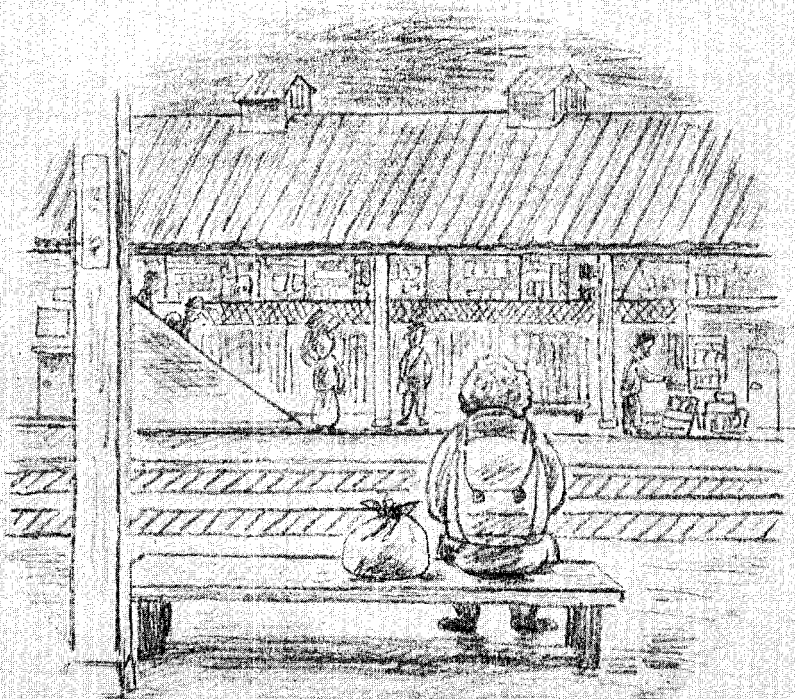
체계적이고 질적인 접근을 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 및 사회 환경 개선

- 노부모를 모실 형편이 되지 않는 가족을 위해 다양한 노인복지시설 즉 주간보호, 단기보호, 그룹홈,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확대 또는 확충할 필요가 있다.
- 고령기가 길어지면서 생기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국처럼 사회보험 혹은 사회보험과 사적보험의 혼합형태인 장기요양보험의 제도화는 부양가족이 장기수발하는데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이로 인한 극단적 학대의 가능성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 유기된 노인이나 수발할 사람이 없는 경우는 국가가 지원하여 보호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해 실행되고 있는 쉼터와의 연계나 여성보호소, 노인무료 양로원, 요양원 등을 이용하는 방법과 장기적으로는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그룹홈 형식의 지역사회거주시설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노인체험관을 만들어 신체적 어려움을 미리 체험해 보게 하여, 청소년 및 일반인들이 그들도 노인이 된다는 일체감, 평등성 등을 느끼게 교육의 장을 만든다. 간헐적으로 민간단체 차원에서 실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국노인의전화 강원도 지회에서는 매년 노인체험하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정책결정자나 노인 복지실무진들,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함께 이야기해 봐요



노인인권동화 『흰둥이네 할머니』 읽고 이야기하기

목적

구성원들의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와 유형별 분류법 습득

준비물

인권동화 편단위로 진행. 제1편 ‘흰둥이네 할머니’ 부터 제6편 ‘할미꽃 전설을 아시나요?’ 까지.

진행방법

한 편을 선정하여 진행하거나 각 편마다의 특성을 찾아보고 서로의 차이점에 대해 발표한다.

지도자 유의사항

- 책을 읽고 그 주제를 다루는데 초점을 둔다.
-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되 논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유의한다.

인권동화의 내용에 대한 역할극

목적

등장인물의 역할을 해봄으로써 상대를 이해한다.

준비물

인권동화 편단위로 진행. 내용을 대본으로 각색.

진행방법

연기지도자와 각 등장역할끼리 대본연습을 한다.

역할 특성에 대해 서로의 견해를 나눈다.

지도자 유의사항

심리극이나 역할극에 대한 사전 탐구를 하고 그 주제를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연기하되 문제해결에 집중한다.

노인학대관련 프로그램 모니터링(매체시청과 토의)

목적

TV에 나오는 노인의 이미지를 분석하여 대중매체를 살펴 보면서 올바른 노인 이해에 주안점을 둔다.

준비물

매달 나오는 TV 프로그램잡지, 신문채널프로그램 소개, 노인관련 잡지와 신문, 공중파, 케이블 TV

진행방법

모니터 요원들이 공중파의 채널들을 각각 맡는다.

모니터 요원들이 신문, 잡지, 광고 등을 검토한다.

그 안에서 주요프로그램이나 섹션을 선정하여 매주 한 달 간격으로 모니터한다. 모니터한 내용을 발표하고 그 안에서 문제점과 대안을 정리한다.

각 방송국, 신문사, 잡지 등의 시정을 촉구한다.

‘나와 노인은 하나’ 라는 일체감 일깨우기

목적

늙으면 노인이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한다. 노인과 일체감을 갖게 하고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준비물

구성원 자신의 둘 사진, 부모의 둘 사진, 조부모의 둘 사진
등 3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사진들

진행방법

구성원과 부모세대, 부모세대와 조부모, 구성원과 조부모 조합을 시켜가면서 어렸을 때 둘 사진을 보면서 세월이 오래 흘러도 서로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사진을 보고 느낀 점, 나이가 든다는 것의 의미를 함께 이야기한다.

지도자 유의사항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한다. 누구나 나이먹고, 나이들면 늙는다는 것을 깨우치도록 한다.

브라운백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 일깨우기

목적

누구에게나 다 소중한 것이 있고 그것은 세상의 잣대로만 잴 수 없는 귀중한 것들이다. 내가 소중하게 대우받고 싶듯이 다른 사람도 다 존엄한 인간이다. 남녀노소, 장애인, 노인, 여성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평등하다.

준비물

구성원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물건을 포장해 집에서 가져오도록 한다.

브라운백(큰 검정쓰레기 비닐 주머니 같은 것)

진행방법

구성원이 가져온 포장된 물건을 브라운백에다 담는다.
돌아가면서 구성원이 브라운백에서 물건을 하나씩 끄집어 내서 펼쳐본다. 물건을 끄집어낸 사람이 추측으로 물건이 무엇인지, 왜 이것이 소중한 물건으로 여기에 있는지, 이 물건을 보았을 때 자신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말하게 한다.

그런 다음 그 물건을 가져온 사람이 일어나서 그 물건이 자신에게 왜 소중한지를 말하도록 한다.

사례

어떤 학생이 브라운백에서 쓰다 남은 지우개 꾀다리를 꺼냈다. 모든 아이들이 동시에 '애개개'라는 탄식을 내뿜었다. 그 물건을 소중한 것으로 가져온 학생이 일어나서 왜 다 닳아빠진 지우개가 소중한지를 말하였다. 그 지우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학생에게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이었고 쓰다 쓰다 조그만 꾀다리가 되었지만 안타까워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고 답하였을 때 구성원 모두 숙연해졌다.

사례가 노인문제와 관련되면 더욱 좋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찮게 보이는 물건이나 사람도 어떤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의미를 지님을 알도록 한다.

지도자 유의사항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구성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탐구한다.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되 인간의 존엄성에 초점을 맞춰간다.

정규적인 학대사례 연구모임

정규적으로 학대사례를 신문, 노인관련 잡지, 책 등을 통해 모은다.

한 달에 한번씩 사례를 가져 와서 그 상황 즉 학대발견에서 인테크-긴급처치-과정기술-보고-처리와 해결-사후교육 등을 추적하면서 연구한다.

이 과정을 연습하고 반복하여 학대발견에서 사후처리까지 모의 연습을 한다.

슈퍼바이저를 통해 사례에 대한 슈퍼비전을 듣는다.

외국의 학대관련 사이트에 들어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한다.

외국 관련기관과 연계를 맺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학대없는 사회를 위해 다각도로 공조한다.

참고하세요



노인화대상담센터

서울	까리따스 방배종합사회복지관	02-523-1043	http://www.cbwc.or.kr
	한국노인의전화(서울)	02-3217-6816	http://www.kisca.or.kr
		02-391-4789~90	
경기	까리따스유지재단(수원지부)	031-247-8374	
	남양주시노인복지회관	031-573-6598	http://www.welovesenior.or.kr
강원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033-535-7557	http://www.seniorcenter.or.kr
대전	까리따스유지재단(대전지부)	042-286-6859	
충북	한국노인의전화(청주지회)	043-255-2144	http://www.cjsilver.or.kr
전북	군산노인종합복지관	063-442-4227	http://www.esilv
전남	순천종합사회복지관	061-744-3792	http://www.scswc.org
대구	햇빛가정봉사원파견센터	053-474-7065	http://www.jabisim.com
부산	부산동구노인종합복지관	051-467-7887	

외국 노인학대관련기관의 홈페이지

미국

- elder abuse hotline(24시간) 800-992-1660
ElderAngels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인학대센터
www.elderangels.com
- long term care ombudsman(시설내 학대) 800-334-9473
www.nyc.ny.us/htm/dtta/html
- Interantional Network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NPEA)
<http://www.inpea.net>
- The National Center on Elder Abuse (NCEA)
www.elderabusecenter.org
- Elder Abuse Prevention (EAP)
www.oaktrees.org/elder/
- National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NCPEA)
www.preventelderabuse.org

캐나다

· Canadian Network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CNPEA)
www.mun.ca/elderabuse/

영국

· Action on Elder Abuse
www.elderabuse.org.uk

노인인권과 관련한 주요 참고도서

- 고양근, 『외국 노인의 정치참여와 권익운동』, 한국노년학회 제11회 노인복지세미나, 2000.
- 광주·전남 노인의 전화, 『정치참여를 통한 어르신들의 권익향상』, 2002.
- 김정석·김영순 (역) 『노년 불평등과 복지정책』, 나눔의 집, 2000.
- 김한근, 『노인학대의 인지도와 노인학대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권 1호,
1998, PP. 184-197
- 김태현·한은주 『노인학대 측정과 개입을 위한 문헌적 고찰』, 한국노년학, 제 17권(1),
1997, PP. 51-73
- 나병균, 『인권으로서의 사회보호의 권리인정』, 사회복지 통권 42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9.
- 남찬섭 역, 『복지국가의 사상과 이론』, 한울, 1996.
- 백종만, 『복지권은 인권인가』, 경성대학교 논문집, 제 9호 2권, 1998.
- 서윤,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지와 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7권,
2000, PP. 27-72
- 이영숙, 『고부관계에서 발생한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35(2)
1997, PP. 359-371
- 우국희, 『노인학대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일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44권, 2001, PP. 209-231
- 조애저 외, 『노부모 학대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 조홍식, 『경제위기하의 생존의 권리와 복지권 21세기의 인권』, 한국인권재단편, 한길사, 2000.
- 최해경, 『노인학대에 관한 인식과 원조요청 태도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 논문집, 제 22권,
1993, PP. 273-286
- 한동희,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황철일 외, 『저소득층의 복지권 내용과 그 인식수준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문, 통권 14호,
1995.
- 노인복지법 / 아동학대방지법 / 존속상해 및 유기 / 가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엄마, 저 할아버지 너무 이상하다, 그치?”

지하철 역사에서 구걸하는 노인을 보고
이렇게 인상 쓰는 아이에게 무슨 애길 해야 할까요?
무조건 “그럼 못 써!” 하면 될까요?

여기 여섯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는 어둡고 슬프습니다.

하지만 이 여섯 동화가 가진 슬픔의 힘으로 이웃과 세상을 둘러보는
우리 아이의 눈길이 맑아집니다. 아이에게 사람 사랑의 씨앗을 심어 줍니다.
소외된 사람의 그리움과 외로움을 어른들도 곰곰 생각하게 하는
사람에 관한 동화입니다.



어린이가 참여하는 세상 만들기

원둥이네 할머니에게 편지를 보내세요.

과수원 집 할아버지도 좋고, 아 추워 영감도 좋아요.

여러분이 가장 편지를 쓰고 싶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따뜻한 글을 보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미래의 나 자신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고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생겼다고요?

누구에게, 어떤 내용이라도 좋아요.

2003년 8월 9일(토)까지 보내 주세요.

2003년 8월 20일(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좋은 글을 소개합니다.

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10층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담당관실

전자우편 | edu2001@humanrights.go.kr 홈페이지 | <http://www.humanrights.go.kr>